4. 경영경제계열 II (2교시)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애가 옆에 있다면 정말 좋으련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년은 지금 자네 곁에 없잖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은 자네 혼자뿐이니 어둡건 말건 아무튼 마지막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끊어 버리고 예비 줄 두 개를 연결해 두는 게 좋겠어. 그래서 노인은 그렇게 했다. 어둠 속이라 일하기 어려웠고, 한번은 고기 놈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 아래가 찢어졌다. 그는 간신히 이물* 쪽으로 돌아가 판자에 몸을 기대고 쉬었다. 그리고 어깨의 힘으로 줄을 고정하면서 고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주의 깊게 가늠해 보고 나서 한 손을 물에 담가 나아가는 조각배의 속도를 헤아려 보았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낚싯줄이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조각배는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었고, 아침 해가 수평선 위에 첫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의 오른쪽 어깨에 햇살이 비쳤다. 그때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북쪽에서 조각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새는 수면 가까이 아주 나지막하게 날고 있었다. 노인은 새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는 배의 고물*에 가서 지친 날개를 쉬었다. 그러고 노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낚싯줄 위에 가서 앉았다. "너 몇 살이냐? 이번 여행이 첫 나들이인 거야?" 노인이 새에게 물었다. 노인이 말을 걸자 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새는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여서 제대로 낚싯줄을 살펴볼 겨를도 없어 보였다. 가냘픈 발가락으로 낚싯줄을 꽉 움켜잡고 있는 동안 아래위로 흔들거렸다.

"줄은 튼튼해. 아주 단단하다고. 간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는데 그렇게 지쳐서야 되겠니." 노인이 새에게 말했다. "새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새들을 노리고 바다까지 날아오는 매들이 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실컷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가 말했다. 밤 동안에 등이 뻣뻣했고 지금은 심한 통증까지 있었는데, 새에게 말을 걸고 나니 노인은 힘이 솟았다.

바로 그때 고기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노인은 이물 쪽으로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갑자기 낚싯줄이 당겨지는 바람에 새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만, 노인은 새가 날아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새와 벗 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인은 그제야 사방을 둘러보면서 새를 찾았다. 그러나 새는 온데간데없었다. 오래 쉬지도 못하고 그만 가 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물: 배의 앞부분.
*고물: 배의 뒷부분.

(나)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종요로운* 것이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통재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하니, 오호통재라. 민첩하고 날래기는 백대의 협객이요,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절을 듣는 듯한지라.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밥 먹을 적 만져 보고 잠잘 적 만져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글릴 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

이 생애 백 년 동거하렸더니, 오호애재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워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유세차: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종요롭다: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긴요하다.
*동지상사: 조선 시대에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수응: 요구에 응함.

(다) 이 몸이 생겨날 때 임을 따라 생겼으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임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에 원하기를 함께 살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는가.
엊그제 임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는데
그사이에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삼 년일세.
황혼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원앙금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
금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지어 내니
솜씨는 물론이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을 뉘라서 찾아갈까.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동산에 달 오르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인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광한전: 달의 선녀인 항아가 산다는 누각.

*편작: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

(라)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희는 남편 정철이 퇴직하면 교외에서 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느끼는 통증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된다. 수술 후 인희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인희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다.

S#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인희,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정철: (멀뚱하게 앞만 보며)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걸. 심심하네.

인희: 여보, 나 소원 있어.

정철: 뭐?

인희: 나 무덤 만들어 줘.

정철: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 달라며?

인희: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 뿌렸는지, 저기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에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꼭 미친 사람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철: …….

인희: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정철: (인희를 본다.)

인희: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정철: (고개를 돌리며) 싫어.

인희: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정철: (고개를 끄덕인다.)

인희: 언제? 어느 때?

정철: 다.

인희: 다 언제?

정철: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맬 때.

인희: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다.) 또?

정철: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으며)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인희: 또?

정철: 술 먹을 때, 술 깰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가 망령부릴 때, 연수 시집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인희: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한 옷섶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며)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이 주룩 흐른다.)

정철: (인희를 안고, 눈물 흘린다.)

인희: (울며 웃으며)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정철: (인희 얼굴을 손으로 안고, 입을 맞춰 준다.) 고마웠다.

(마) 인류 중 불행하고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화기*가 있고, 화기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 활동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 간에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았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입니다.

정의는 본래 천부*한 것이언만,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이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또 혼상, 제사도 허례로 기울어지고 진정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회고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정이 생김은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사이에 아무 정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한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또한, 집 안에 계신 조부모나 부모는 호령과 매 때리기로만 일을 삼으므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강보에서부터 공포심만 가득한 생활을 하던 아이가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 가면 훈장이라는 이가 또한 호랑이 노릇을 합니다. 또 시부모와 며느리, 형과 아우, 모든 식구가 다 서로 원수입니다. 관민 간에도 그러합니다. 리에, 면에, 군에, 도에 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찬바람이 아니 부는 데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막힌 것은 남녀 간의 무정함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 부부가 만일 서로 보고 웃었다가는 큰 결딴이 납니다.

이제 한 번 눈을 돌려 다정한 남의 사회를 봅시다. 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코 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도 아이를 특별히 대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처럼 역정을 내며 먹으라고 호령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에도 화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조 적부터 무정한 피를 받았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더운 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참삶의 맛을 알겠습니다.

*정의: 서로 가깝게 지내어 친하여진 정.
*화기: 화목한 기운.
*천부: 하늘이 줌. 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님.
*완희물: 장난하며 희롱하는 대상.
*선차: 배와 수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의미함.

(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서는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항상 존재한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구성원 간에 합리성을 공유해야 한다. 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는 이러한 합리성을 의사소통적 이성이라고 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를 향상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대화와 토론에 항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사소통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면 참여자들은 스스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항을 지키게 된다. 이

와 같은 화해와 자율 정신은 현실 사회를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대화와 토론, 즉 의사소통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므로 사회 구성원의 의사소통 행위는 윤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왜곡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윤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화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권력과 돈의 위력 등 외부의 압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윤리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왜곡된 담화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갈등의 심화와 분쟁을 초래한다.

(사) 과거 서양의 사상가들은 전통적으로 도덕의 문제를 정념과 이성 간의 싸움으로 설정하였고, 이 싸움에서 이성이 승리하는 것이 곧 선이요 덕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성에 의한 정념의 지배'는 오랫동안 서양 윤리학의 공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흄에 따르면 이성은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성의 능력인 지성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이성은 바람직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며, 감정만이 의지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덕적 활동은 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은 개인들 각자의 주관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인 감정들이다. 흄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은 인류 전체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갖도록 만든다. 흄은 이를 다음처럼 설명한다. "그(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의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가) 동굴에 갇혀 있는 관광객을 구조하기 위해 한 명의 구조원이 파견되었다.

(나) 구조원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아래와 같은 코스 A, B, C, D의 갈림길이 나타났다.
구조원이 코스 A, B, C를 선택하는 경우, 관광객을 만나지 못하고 각각 4시간, 3시간, 2시간 후 출발 장소(갈림길)로 돌아온다.
구조원이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 1시간 후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에 도착한다.

(다) 구조원이 출발 장소(갈림길)에서 각 코스를 선택할 확률은 동일하다.

(라) 코스를 잘못 선택하여 출발 장소(갈림길)로 돌아온 경우, 선택했던 코스는 다시 선택하지 않는다.

[문제 3] **구조원이 출발 장소(갈림길)로부터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출전 및 출제의도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김동환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8, 67-71쪽.
- 제시문 (나): 유씨 부인, 「조침문」,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2018, 186-188쪽.
- 제시문 (다): 정철, 「사미인곡」, 방민호 외, 『문학』, 미래엔, 2018, 194-197쪽.
- 제시문 (라): 노희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최원식 외, 『국어』, 창비, 2017, 90-97쪽.
- 제시문 (마):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2018, 96-100쪽.
- 제시문 (바): 「소통과 담론의 윤리」, 정탁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186-189쪽.
- 제시문 (사): 「도덕적인 삶과 감정」,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씨마스, 2018, 137-139쪽.
  「도덕 감정과 도덕적 삶」,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8, 141-142쪽.
- 문제 3번 출전
  - 권오남 외, 『수학』, 교학사, 2018, 255-262쪽.
  - 배종숙 외, 『수학』, 금성출판사, 2018, 263-267쪽.
  - 고성은 외, 『수학』, 좋은책신사고, 2018, 249-252쪽.
  - 권오남 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9, 44-95쪽.
  - 배종숙 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49-98쪽.
  - 박교식 외, 『확률과 통계』, 동아출판, 2019, 43-86쪽.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문학』(천재교과서, 2018)에 실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인용한 소설의 장면은, 고기잡이에 삶의 가치를 둔 한 노인이 홀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낚싯줄에 걸린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하는 과정에서 배로 날아와 앉은 작은 새와 대화를 나누며 새로부터 작은 위안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노인은 현재 자신이 처한 고단하고 외로운 상황을 자신과 처지가 닮은 새에게 투영함으로써 동정을 느끼고, 더불어 새를 끝까지 보살펴 주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을 느낀다.

제시문 (나)는 『독서』(지학사, 2018)에 실린 「조침문」에서 인용한 글로서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학생들이 지문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조선 후기 여류 문인의 작품으로, 평생의 벗으로 귀중히 아끼던 바늘이 부러져서 느낀 상실감, 안타까움, 슬픈 애도의 정이 제문 형식을 통해 탁월한 비유와 섬세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미래엔, 2018)에 실린 정철의 「사미인곡」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원문을 일부 중략한 글이다(중략 표시는 생략했음). 이 작품은 절대적인 임(임금)을 조건 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한 조선시대 가사로서, 특히 제시문으로 인용된 부분에서는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을 사모하는 연정, 다시 임의 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등이 수려한 문장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제시문 (라)는 『국어』(창비, 2017)에 실린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대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인용한 글이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전개되는 가족간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마지막 장면은, 일상의 경험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온 부부의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 진정한 사랑 감정 등이 미묘하게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잘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독서』(미래엔, 2018)에 실린 안창호의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서 특히 안창호 선생님은 '무정한 사회'와 '다정한 사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비교 설명하면서, 대한 사회가 개조(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 사이의 정이 돈독히 쌓여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인간 관계'가 형성돼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7)에 실린 「소통과 담론의 윤리」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서는 하버마스가 제시한 의사소통적 이성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를 수 있는 담론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의사소통 과정에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성적 대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갈등을 넘어 상호이해와 화해의 사회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반추해 보게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씨마스, 2018)의 「도덕적인 삶과 감정」과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학사, 2018)의 「도덕 감정과 도덕적 삶」의 일부를 출제 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 의하면, 보편적 윤리기준 확립을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감정을 넘어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지문은 사회발전에 있어서 보편적 윤리기준으로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출제의도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1) 동일한 주제가 내포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지문 독해력과 이해력,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특정 관점에서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주어진 네 제시문을 '정'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정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정이 갖는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사물, 자연, 사람 등에 정을 주는 '이유'와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도출한다. 이렇게 각 제시문에서 찾은 이유와 감정들을 단순 요약하기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요령 있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능력, 말하자면 답안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는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사회발전에 있어 '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발전의 토대로 작용하는 정이 개인적 수준의 정의(情誼)에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정의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족 사이에서 돈독하게 쌓여가는 정을 기본으로 다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개조의 첫 번째 단초이며, 이러한 개인 간의 정의가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 간 의사소통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적 이성이 있어야만 왜곡된 의사소통이 없어질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정한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성적 접근에 더하여 감정의 측면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덕적 실천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감정으로서 공감이 전제된 의사소통적 이성이 윤리적 기준으로 확립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문을 통합적,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사고력과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중요하다.

[문제 3]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 및 기댓값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조난 당한 관광객을 구출하러 가는 구조원의 경로 선택 문제를 확률과 관련시키고 경로 선택에 따르는 소요시간 문제를 기댓값 계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 문제는 이산확률변수와 그 확률분포 및 기댓값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

예시답안

[문제 1] **제시문 (가)~(라)에서는 '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특정 상황에서 정을 주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 (가)의 노인은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만난 새가 자신처럼 힘겨운 상황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정을 준다. 여기서 작은 위안을 얻었던 노인은 떠나간 새에게 자신의 처지를 투영한 동정과 함께 미안함을 느낀다. (나)의 부인은 바늘이 오랜 세월 벗이 되어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계에 도움을 주며 사람과 달리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정을 준다. 그런데 애정을 가졌던 바늘이 부러진 후 상실감으로 인해 슬픈 애도의 감정을 느낀다. (다)의 화자는 사랑하였던 임에게 버림받았음에도 절대적인 임을 잊지 못해 일방적인 정을 쏟는다. 이때 표출되는 감정은 대상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인 연정이다. (라)의 부부는 일상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 온 배우자의 죽음을 앞두고 정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정을 표현한다. 이때 부부는 슬픔, 안타까움, 고마움, 사랑 등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외로움, 상실감, 사모, 이별 등의 이유로 정을 주고, 이때 동정, 애정, 추모, 연정, 슬픔, 사랑 등의 감정을 느낀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 따르면 대한 사회가 무정한 사회로 전락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인 인간관계가 정의 없이 관습, 유교적 허례, 권위 등에 의해 맺어져서 갈등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다정한 사회로 가려면, (라)의 부부 사례처럼 상호배려를 기반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솔한 인간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이렇게 개인 간 정의가 쌓여 다정한 사회가 된 후,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바)에 따르자면,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르는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의사소통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사)에 따르면 이때의 감정은 주관적 감정을 넘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 이성은 도덕적 방향만을 제시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감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감 능력 역시 사회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이다. 요약하면 다정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감정이 통합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570자)

[문제 3] **구조원이 출발 장소(갈림길)로부터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기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관광객이 갇혀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확률분포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다.

소요되는 시간(X)	확률	방문 코스들
1	$\frac{1}{4}$	D
3	$\frac{1}{4}\times\frac{1}{3}=\frac{1}{12}$	CD
4	$\frac{1}{4}\times\frac{1}{3}=\frac{1}{12}$	BD
5	$\frac{1}{4}\times\frac{1}{3}=\frac{1}{12}$	AD
6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BCD (BC 순서 교환 가능)
7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ACD (AC 순서 교환 가능)
8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	ABD (AB 순서 교환 가능)
10	$3!\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times1=\frac{1}{4}$	ABCD (ABC 순서 교환 가능)

- 확률계산 설명은 아래와 같다.
  - $X=1$인 경우는 한 번에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확률은 $\frac{1}{4}$이다.
  - $X=3$인 경우는 코스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2 + 1 = 3이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4$인 경우는 코스 B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3 + 1 = 4가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5$인 경우는 코스 A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 + 1 = 5가 소요되고 확률은 $\frac{1}{4}\times\frac{1}{3}=\frac{1}{12}$이다.
  - $X=6$인 경우는 코스 B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3 + 2 + 1 = 6이 소요되고 B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이다.
  - $X=7$인 경우는 코스 A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 + 2 + 1 = 7이 소요되고 A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이다.
  - $X=8$인 경우는 코스 A와 B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 + 3 + 1 = 8이 소요되고 A와 B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2!)를 곱하여 확률은 $2!\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frac{1}{12}$이다.
  - $X=10$인 경우는 코스 A와 B와 C에 이어서 코스 D를 선택하는 경우이며, 총 시간은 4 + 3 + 2 + 1 = 10이 소요되고 A와 B와 C의 방문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3!)를 곱하여 확률은 $3!\times\frac{1}{4}\times\frac{1}{3}\times\frac{1}{2}\times1=\frac{1}{4}$이다.

- 해당 표로부터 기댓값을 계산하면,

$$E(X)=\left\{1\times\frac{1}{4}\right\}+\left\{(3+4+5)\times\frac{1}{12}\right\}+\left\{(6+7+8)\times\frac{1}{12}\right\}+\left\{10\times\frac{1}{4}\right\}=\frac{66}{12}=\frac{11}{2}=5.5$$로 5시간 반이 된다.

체점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등장인물이 대상에 정을 주는 '이유'와 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이유**: 망망대해 속에서의 고단함(피로함)과 외로움 속에서 우연히 자신이 현재 처한 힘겨운 상황과 닮은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4점)
감정: 작은 위안, 새에게 자신의 상황을 투영한 동정, 새를 돌보지 못한 아쉬움과 미안함(4점)

(나) **이유**: 오랜 세월 벗이 되어 가족 없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계에 도움을 주며, 사람과 달리 곁을 떠나지 않고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4점)
감정: 애정을 가졌던 바늘이 부러진 후 상실감, 슬픔, 애도의 감정(4점)

(다) **이유**: 과거 사랑했던 임(임금)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임을 잊지 못해 다시 임에게로 되돌아가고 싶기 때문에(4점)
감정: 이때 표출되는 감정은 대상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서의 연정(4점)
- 여기서 임은 임금을 상징하기에 임이란 표현대신에 임금이라고 표현해도 무관하다. 단 이때의 감정을 임금을 향한 충의(충절)로만 쓰는 경우에는 부분 감점이 필요함.

(라) **이유**: 일상과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해 온 배우자의 죽음을 앞두고 정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4점)
감정: 이때 부부는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고마움, 사랑 등이 미묘하게 뒤섞인 감정(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찾은 '정을 주는 이유'와 '이때 표출되는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 잘 압축하여 글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는 특정 상황에서 정을 주며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
- 결론: 결론적으로 사람은 외로움, 상실감, 사모, 이별 등과 같은 이유로 사물 혹은 사람과 정을 나누고, 이때 느끼는 감정은 동정, 애정, 추모, 연정, 슬픔, 사랑 등이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이유와 감정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의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제시문 (라)의 논지 파악 및 이를 토대로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도출했는지 평가한다.(15점)

① 제시문 (마)의 무정한 사회의 특징 파악: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파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정한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무정한 사회로 전락한 이유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인 인간관계가 정의 없이 관습, 유교적 허례, 권위 등에 의해 맺어져서 갈등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5점)

② 제시문 (라)의 논지 및 이를 제시문 (마)에 적용: 제시문 (라)에 나타난 부부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아래에서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쌓여왔던 부부 간의 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 간 정이 돈독하게 쌓이는 모습이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점을 유추해 내야 함(15점)

2) (바)와 (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에 나타난 '다정한 사회'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사회개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25점)

①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 이성을 다정한 사회가 이루어진 후,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여부(5점)

② 이성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기 위한 조건을 (사)에서 찾아야 함. 여기서 이성의 역할(방향 제시)과 감정의 역할(실천기준 제시)의 구분 및, 개인적 감정이 아닌 사회적 감정으로서 공감이 도덕적 행위를 가능케 하다는 점을 파악했는지 여부(10점)

③ (바)와 (사)의 통합 여부 파악: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감정이 통합된 윤리적 공감대 형성을 답안에 썼는지에 대한 여부(5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무정한 사회제시 및 (라)의 논지를 근거로 (마)의 다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했는지 평가(15점)	(마)의 무정한 사회만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마)의 무정한 사회 내용 제시 및 (라)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하는 경우	6~10점
		(마)의 무정한 사회 내용 제시 및 (라)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 이를 근거로 무정한 사회가 다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 도출하였을 경우	11~15점
	② (바)와 (사)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에 나타난 '다정한 사회' 이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조건 제시(25점)	(바)에 나타난 의사소통적 이성만을 첫째 조건으로 정확히 제시한 경우	3~5점
		위에 더하여, 이성적 의사소통이 사회적 공감으로 확대되기 위한 조건을 (사)에서 찾아서 정확히 제시한 경우	6~19점
		(바)와 (사)의 통합으로서 의사소통적 이성과 사회적 감정이 통합된 윤리적 공감대 형성을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20~25점

[문제 3] 20점 만점

- 갇혀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률변수로 올바르게 정의한 경우: +5점
- 확률변수의 확률들을 올바르게 유도한 경우: +8점
  ※ 8개의 확률값들 중 하나가 틀릴 때마다 -1점
-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7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2~3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